

## 1. 완료 분사구문

- 1)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먼저 일어난 일일 때, 분사구문의 동사를 「having + p.p.」로 쓴다.
- 2)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대과거'라고 하며, 이들 간의 시제를 비교하여 단순 과거분사를 써야 할지, 완료 분사를 써야 할지 결정한다.
- 3) 완료 분사구문을 만들 때에는 먼저 부사절의 접속사를 생략하고,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 주어도 생략하며,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더 과거, 즉 대과거인 경우 부사절을 단순 p.p형이 아닌 'having + p.p'로 바꾼다.

## [교과서 예문으로 확인하기]

Having left our luggage at the hotel, my family and I walked around the city.

✓ 짐을 둔 것이 도시를 걸어다닌 것보다 이전의 일(대과거)이므로 완료 분사구문을 사용했다.

<해석> 호텔에 짐을 놓고 나서, 우리 가족과 나는 도시를 걸어 다녔다.

## 2. 'so ~ that ,,,'

"so A that B"라고 쓰인 구문은 '너무 A해서 B하다'라고 쓰이며, A에는 주로 행위의 정도나 강도, 양 등을 서술하고, B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현상 등을 이야기한다.

## [교과서 예문으로 확인하기]

The atmosphere was so lively and exciting that the entire event felt more like a small festival than a market.

✓ so lively and exciting that은 '너무 활기차고 즐거워서'라고 해석된다.

<해석> 그 분위기는 너무 활기차고 즐거워서 전체 행사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작은 축제 같았다.

## 3. 간접의문문

- 1) 간접의문문은 문장에서 직접적으로 묻는 표현이 아닌,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등의 의미로 해석되며 평서문이나 의문문과 결합되어 사용된다.
- 2) 간접의문문의 어순은 항상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순서이다.
- 3) 간접의문문 중에서 의문사에 'how + 형용사'(예- how long)이 사용될 경우 '얼마나 ~한지(얼마나 긴지)'의 의미로 해석된다.

## [교과서 예문으로 확인하기]

I was deeply impressed by how the Malaysians have embraced their diversity and how it has made its culture richer.

✓ '의문사 (how) + 주어(Malaysians) + 동사(have embraced)'로 쓰였고, 동사의 자리에 현재완료 시제가 사용되었다. 뒤이어 병렬적으로 연결된 또 다른 간접의문문 또한 '의문사 (how) + 주어(it) + 동사(has made)'의 구성이다.

<해석> 나는 어떻게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그들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문화를 풍부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크게 감동했다.

## 미리보는 빈출문장

★ I 1)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Malaysia 2)because it is a multicultural country, 3)where Chinese, Indian, Islamic, and traditional Malay cultures coexist with European influences.

## 1) 과거완료

과거보다 더 이전의 시점을 이야기할 때에는 대과거 형태를 쓰는데, 이 경우 Penang에 가기로 결정한 것이 과거라면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과거완료의 계속적 용법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해 왔다)를 쓴다. 과거완료는 had + been p.p를 사용했다.

## 2) 접속사 because

접속사 because의 뒤에는 주어와 동사의 형태를 갖춘 절의 문장구조가 오면서, 앞서 언급한 내용의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한다. 만약 접속사 because가 아닌 because of가 온다면 전치사 of가 있기 때문에 뒤이어 명사나 명사구 형태만 올 수 있다.

## 3) 관계부사 where

multicultural country를 설명하는 관계절이며 관계부사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모두 있는 문장이 온다.

〈해석〉 나는 말레이시아가 중국, 인도, 이슬람과 말레이의 전통 문화가 유럽의 영향력과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항상 관심이 있었다.

★ European-and Asian-style buildings stood 1)side by side, and many buildings looked 2)neither completely Western nor completely Eastern 3)but a mixture of the two.

## 1) side by side

나란히, 옆으로 죽 늘어서

## 2)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닌.

neither이 쓰이면 nor이 오고, either이 쓰이면 or이 온다는 것에 유의한다.

## 3) not A but B

neither A nor B의 'nor'이라는 부정형 표현과 not A but B가 결합하여, neither A nor B but C의 표현이 완성되었는데, 'A도 B도 아니고 C이다'라고 해석된다.

〈해석〉 유럽과 아시아 스타일의 건물들이 나란히 줄지어 서 있었고, 많은 건물들이 완전히 서양식도 완전히 동양식도 아닌 그들 둘이 혼합된 것처럼 보였다.

★ 1-1)Painted in vivid blue and 1-2)built in a style 2)that combined Chinese and European architecture, it was 3)both beautiful and unique at the same time.

## 1) 분사구문의 병렬

수동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과거분사가 사용되었으며, 과거분사 Painted와 built가 병렬적으로 연결된 분사구문이다. 분사구문은 처음 As it was painted in vivid blue and built in a style that combined Chinese and European architecture. 의 문장에서 접속사 as를 생략하고,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기 때문에 it 을 생략한 후 남은 동사 was를 being으로 바꾼다. 이 때 being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생략해주면 Painted와 built만 남게 된다.

## 2) 주격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 a style을 수식하고 관계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 3) both A and B

'A와 B 둘 다'라는 의미

〈해석〉 선명한 파란색으로 칠해져 중국과 유럽 건축의 결합된 스타일로 지어져서, 그것은 아름다운 동시에 독특했다.

## 미리보는 빈출문장

★ 1) The colorfulness and slightly different decorations of the buildings 2) made the whole street look really delightful.

## 1) 주어부

문장의 주어부 전체는 The colorfulness and slightly different decorations of the buildings이고,

그 중에서도 실제 주어는 colorfulness와 decorations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는 과거 시제가 쓰여 주어와 동사의 수 일치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어부가 길 경우 수 일치에 유의해야 한다.

## 2) 5형식 문장

5형식 문장은 사역동사 + 목적어 + 목적보어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역동사의 종류에 따라 목적보어의 형태가 달라진다.

이 문장에서는 사역동사(make) + 목적어(the whole street) + 목적보어(look)으로 목적보어에 동사원형이 사용되었으며, look (really) delightful은 「look + 형용사」의 구문을 활용하여 (정말로) 유쾌해 보이다라는 의미이다.

〈해석〉 건물들의 다채로움과 약간씩 다른 장식들은 거리 전체가 굉장히 유쾌해 보이도록 했다.

★ I was also 1) surprised to learn 2) that these works of art 3) were created 4) not only by local people but also by artists from all parts of the world.

## 1)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의 과거분사형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중에서도 기본적인 의미가 타동사, 즉 목적어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동사인 경우,

예를 들어 surprise, amaze와 같이 ‘놀라게 하다’는 의미가 기본형인 경우 주어가 ‘나’이거나 ‘갑정을 겪는 대상’인 경우

이들을 과거분사형으로 사용하여 수동의 의미, ‘놀라다’로 만든다. 여기에서도 surprised로 사용되었다.

## 2) 접속사 that

동사 learn의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 3) 수동태

these works가 주어이므로 동사는 ‘만들어졌다’는 수동의 의미를 위해 were created라고 사용되었다.

## 4)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의미로, 여기에서는 각각 A와 B의 자리에 by local people과 by artists가 병렬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표현의 경우 A보다는 B의 의미를 더욱 강조한다.

〈해석〉 나는 또한 이러한 예술 작품들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예술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 I 1) was deeply impressed by 2-1) how the Malaysians have embraced their diversity and 2-2) how it has made its culture richer.

## 1) be impressed by

impress는 ‘인상을 주다’는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감명받다’는 수동의 의미를 위해서는 be + p.p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수동태의 주체가 바로 뒤이어서 by~로 나오는 형태로, ‘~에 감명받다’라고 해석한다.

## 2) 간접의문문의 병렬

간접의문문은 실제로 의문사를 통해 직접 묻는 표현이 아닌, ‘얼마나 ~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등의 의미를 가지는데, 간접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 주어 + 동사로 고정되어 있다.

이 문장에서는 첫 번째 의문문이 how + Malaysians + have embraced~로 쓰였고, 두 번째 문장은 how + it + has made ~라고 사용되었다. 두 표현 모두 시제는 현재완료로, ‘과거부터 ~하게 지속되어 왔다’는 계속적 용법이다.

〈해석〉 나는 어떻게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그들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문화를 풍부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크게 감동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19년 4월 18일

2) 제작자 : 교육지대(주)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